



“환상연기 기대하세요”

김연아 24일 '아이스 쇼'



“눈을 땀 수 없는 2시간 30분의 화려한 공연을 기대하세요.”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출연하는 은반 위의 축제 ‘KCC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09’(24~26일·일산 킨텍스)가 뮤지컬 음악을 배경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 피겨 팬들의 감성을 풀어준다.
 이번 아이스쇼를 주최하는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커튼콜’이라는 콘셉트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관객들이 눈을 땀 수 없는 2시간30분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역시 관심은 김연아의 연기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처음 국내 팬들과 무대에서 만나는 김연아는 지난 시즌 갈라 프로그램인 린다 에더의 ‘골드(Gold)’와 이번 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팝스타 리한나의 ‘돈 스톱 더 뮤직(Don't stop the music)’을 선보인다.
 아이스쇼의 오프닝과 피날레 무대는 각각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맘미아’의 곡들을 배경으로 국내 피겨 유망주 윤예지(과천중)와 김민석(불암고)이 연기를 펼친다.
 또 1부 마지막 순서와 2부 첫 순서에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각각 특별 무대를 마련하고, 남자 선수들은 비보이와 함께 은반에서 댄스 배틀을 가질 예정이다.
 또 국내 팬의 큰 사랑을 받는 조니 웨어(미국)는 인기 가수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
 한편 24일 공연은 오후 5시에 시작하고 25일과 26일 공연은 오후 8시에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2010년 영암 F1 ‘한국인 드라이버’ 나온다

2010년 가을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틀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한국인 드라이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 KAVO는 20일 “2010년 한국 대회에는 한국인 드라이버가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터스포츠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 의 성공 여부는 한국인 드라이버의 출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골프 박세리, 수영 박태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등 선수가 격인 선수가 등

장하며 국민적 관심이 쏠렸듯이 F1에도 한국인 드라이버가 나선다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때문이다.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끝난 2009시즌 3라운드에는 20만 관중이 들어섰지만 인구 1천 340만 명의 상하이와 전남 영암은 조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KAVO 관계자는 “네덜란드 입양아 출신 최명길, 재일교포 3세 이경우 등을 대상으로 2010년 코리아 그랑프리 출전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며 “2010년 시즌 전에는 아니더라도 한국 대회 출전은 특정 팀과 협의만 잘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으로 달리는 사이클

20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장애인들의 날 기념 ‘제1회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핸드사이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 검도 전국 제패

조선대 검도팀이 전국 최고의 검객으로 떠올랐다.
 조선대 검도팀은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춘계 전국대학 연맹전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전문대를 4-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대회에서 우승했던 조선대는 9년만에 다시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결승에서 조선대는 신봉 우재동(3년·대학상비군)과 2위 김철(3년)이 인천전문대

박준모와 송승호를 각각 2-0으로 제압하며 상급한 출발을 보였으나 장원진(3위·4년)·이화란(중견·4년)이 구자문과 홍성우에게 연속 패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말았다.
 조선대는 2-2 팽팽한 접전 속에 나선 5위 강성민(3년)이 김민수를 가리며 놀려 3-2로 한발 앞서 나갔으나 부장전에서 오경석이 패해 3-3으로 막판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다.
 마지막 주장전에 나선 오성훈(4년·대학상비군)이 상대 최광욱을 2-0으로 누르고

춘계 대학연맹전 男 단체전 결승
 인천전문대 꺾고 9년만에 우승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점을 찍었다.
 지난해 전국대회서 단 한번도 우승을 못하고 3위에 그쳤던 조선대는 올 첫 춘계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대활약을 예고했다.
 조선대를 우승으로 이끈 김현준 감독은 “지난 동계훈련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면서 “올해 전력이 좋은 만큼 전국대회 정상에 향해 계속 도전해 보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광주 남구청 레슬링 단체전 금

회장기 금 1, 은 1, 동 2 획득

광주 남구청이 제27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우승했다.

남구청은 20일 해남 유체체육관에서 열린 일반부 자유형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로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결승에서 남구청은 66kg급 오준석

승영의(충남도청)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양한진(96kg급)과 여승철(74kg급)이 정경민(함평군청)과 정대희(수원시청)에게 각각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120kg급 양찬상은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남구청은 금 1개를 포함,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자유형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

신안 섬마을에 ‘승마 특성화 학교’ 탄생

임자초교 전국 첫 초등 승마단 창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해안 섬마을 초등학교에 승마부가 창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신안 임자초등학교가 최근 20명으로 전국 첫 어린이 승마부를 창단하는 등 승마특성화 학교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교생 112

명 가운데 말을 타 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어린이 20명으로 승마부를 구성했다.
 승마 교습 비용 등 기본 경비는 군과 학교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승마 장구류만 갖추면 된다. 이 학교는 승마부를 만들게 된 것은 인접한 대광해수욕장이 2007년 국제해변승마장으로 지정, 운영된 것이 계기가 됐다. 길이 12km, 폭 400m에 달하

는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진 대광해수욕장은 국내 유일의 말 마라톤 코스로 부상하고 있다.
 군이 민자를 유치한 국제해변승마장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승마 교습에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서 기증받은 말 1필과 해변승마장을 활용해 훈련하고 하반기에는 한국마사회 등에서 말 6필을 기증받을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변승마 학교라는 장점을 잘 활용해 승마 특성화 학교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연합뉴스

‘K-리그’ 첫 1위 상무 26일 팬 이벤트 실시

프로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광주 상무가 정규리그 1위 등극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상무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 FC와의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1위의 감동을 시민과 함께’라는 행사를 갖고, 학생 무료입장 행사를 펼친다. 성인 입장권은 1천원에 판매된다.
 선착순 입장 관중을 위해 떡과 기념품 세트 등도 마련되며, 경품 추첨을 통해 대형 냉장고, 김치냉장고도 증정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단이 사인볼 50개를 관중석에 선물한다.
 상무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공수의 ‘핵’ 공격수 최성국과 골키퍼 김용태는 시합구 6개에 친필 사인을 한 뒤 팬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상무는 지난 정규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을 1-0으로 꺾으며, 2003년 리그 참가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남도 derby’에서는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승점 1점을 추가해 승점 13점으로 2위 전북 현대(3승2무승점 11)를 따돌리고 선두 독주를 이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

흥국생명 어창선 감독대행

‘대행’ 떴고 정식 감독 승진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어창선(사진) 감독대행이 20일 감독으로 공식 승진했다.
 어 감독은 이날 ‘대행’ 딱지를 떼고 감독으로 발령받았다. 어 신임감독의 계약 기간과 대우 등은 추후 구단과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2004년 코치로 구단에 합류, 2006년 12월부터 수석코치로 사령탑을 보좌했던 어 감독은 작년 12월30일 전직 경원전 환원준 전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쥔 이승현 전 감독마저 지난달 11일 성적부진 때문에 자진 사퇴하자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끌어 왔던 어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승진했다.
 한편 남자부 KEPCO45의 차승훈 감독대행은 외국인 선수와 독일에서 활동하는 문성민(23·프리드리히스하펜) 영입 여부가 마무리되는 내달 말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제) ※ 투자하실 분 및 제테크상담 대화형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구	유촌동 비탈리빌2차	34	17/15	1억4500만	1억
	동암동 대우파크빌2차	46	18/9	1억8000만	1억2600만
	화정동 삼익맨션	42	12/8	1억2000만	8400만
	마북동 화랑가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광영하이츠	32	25/4	8800만	6100만
	화정동 삼익	42	12/8	1억4000만	7800만
	쌍용동 삼우행복차	34	15/12	1억7000만	1억1900만
	치영동 중흥1단지	38	17/15	1억9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남양파크	42	19/4	1억8000만	1억2800만
	쌍용동 부건빌고을	32	19/17	1억3500만	9400만
남구	금호동 리안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베스타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중앙동 금호타운	39	20/20	1억8000만	1억1200만
	금호동 호반리전빌	33	20/7	1억4000만	9800만
	금호동 도시공원2단지	24	15/13	8200만	6660만
	전원동 삼익세라믹3차	32	20/6	1억2000만	8400만
	주월동 삼천그린	32	15/8	8000만	5600만
	주월동 명지	44	20/13	1억9000만	9100만
	주월동 대화아파트	48	12/2	1억2500만	8700만
	주월동 명지아파트	44	20/13	1억3000만	9100만
북구	주월동 금호타운	32	20/9	1억3000만	9100만
	주월동 일무에다스1차	38	15/6	1억5000만	1억5000만
	간월동 교원아파트	32	12/1	1억4000만	9800만
	라학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관동동 현대1차	48	18/6	2억	1억4000만
	일곡동 현대2	24	19/15	7600만	5300만
	매곡동 새광인텔파크	37	22/1	1억2000만	84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8	1억8000만	1억1200만
	동월동 주원마을4단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062)227-9500

회춘 박기부전, 도로, 단련선 비대현역(양가서) 부득양불 3일지속 금송(당도노루해결) 무료선물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99,000원

파워마카 100(분말)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상담 010-8558-4114/02-2672-0454 전화 010-8952-4114/02-2633-4110